

현대 패션에 나타난 쯐(zen;禪)양식에 관한 연구

조 정 미 · 김 예 형*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부교수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의류학전공*

A Study on the ZEN(禪) style in Contemporary Fashion

Jung-Mi Cho · Ye-Hy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 Professor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t. of Clothing & Textile, Master course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Zen style in contemporary fashion which presents itself as one of the dominant cultural phenomena these days. After investigating the basic concepts and features of the Zen style and examining its birth and development, this study moves on to the ways in which it is characteristically applied for the world of fashion. This study is also performed both by the theoretical research on related books and papers for the explication of main concepts and by the practical research on fashion magazines and works of famous fashion designers for the presentation of more detailed illustration.

When we are talking about postmodernism, which is a reaction against or a continuation of modernism, as a cultural dominant shown up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the Zen style itself can be regarded as a typical representation of postmodernism in fashion. Although the Zen style can be viewed as sharing the basic principles with minimalism which is a main branch of modernism, it is strongly in line with postmodernism (which is human-centered) in that its fundamental idea is based on emotions and feelings of human beings and the purity of natural world. As above, ZEN is a crossover phenomenon between postmodernism and modernism. In this sense, it is said that within the name of postmodernism the Zen style has satisfied our desire to present our inner world of mind with the help of regional philosophy (in this case Oriental one).

The four main aspects of the Zen style in fashion are following: simplicity connected with the Oriental moderation, the use of the Oriental silhouette and detail, the destruction of form, and the nature-friendly attitude. These will be under close examination in this study.

Key Words : ZEN, buddism, modernism, postmodernism, crossover

쯐(ZEN:禪), 불교,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복합문화현상

I. 서론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시작된 20세기는 말기에 이르러서는 극도의 물질문명 확장에 따른 세계 종말의 위험적 징후들이 나타났다. 인류는 지구의 온난화, 인종 갈등, 핵무기, 도시의 부패, 도덕의 붕괴, 종교의 부패, 마약 중독, 관료제의 경직성, 생태계 문제, 기업의 횡포, 세계 시장의 붕괴, 에이즈, 자원 고갈 등의 다양한 위기 징후의 사회 현상을 겪으며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해결 방향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예술, 문화 분야에서도 인간 존중의 시각에서 이러한 징후들을 표현하여 인류의 절망감과 위기감을 나타내고, 또 극복과 창조의 새로운 시발점을 모색하려는 여러 측면에서의 시도가 다양한 양식으로 20세기 후반에 끊임없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양식 중 90년대 후반을 특징지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스타일 중 하나가 '젠(ZEN:禪) 스타일'이다.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의 획기적인 발달이 가져 온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와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온 인간성 부재를 인식하여 복잡함, 화려함, 과장됨, 시끄러움 등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단순하고, 순수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션계와 문화계 전반에 새로운 동양 복식의 형태미를 표출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젠 스타일로 해석되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서구인들이 동양에 대한 느끼는 이국적인 신비함에 절제미를 조화시킨 스타일로 더욱 더 부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젠 스타일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패션에 적용하여 젠 스타일을 보다 폭 넓게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젠 사상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보고, 젠 스타일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발전과정을 규명한다. 둘째, 젠 스타일의 문화, 예술적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패션에서의 젠 스타일의 조형성과 예술적 가

치를 각 디자이너의 젠 스타일 전개방법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젠 사상의 일반적 개념과 서양에 젠 사상의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및 확산 과정은 관련 참고 서적 및 논문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서 이루어졌으며, 젠 스타일의 문화, 예술적 특성은 예술사조 및 패션 관련 서적과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또한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젠 스타일의 특성은 패션전문 잡지 기사 및 각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II. 젠(ZEN:禪) 사상의 개념과 확산

1. 젠(ZEN:禪) 사상의 일반적 개념

'젠(ZEN)'이라는 것은 선(禪)의 서양 발음이며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을 바라본 것으로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소개된 것으로 개인의 자각과 명상을 강조하는 불교 학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 그러나 禪의 본질로 들어가서 논의하면 禪은 단순한 철학 사상은 아니며, 그렇다고 단순히 종교라고 정의 내릴 수도 없다. 다만 禪이란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佛性)을 개현(開顯)시켜 깨달음을 얻게하는 수행 법이다²⁾. 즉 禪이란 불교에서 중시하는 법으로서 명상으로 심신을 통일하는 것, 앉아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집념을 떨쳐내어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으로 인도에서는 불교이외에도 일찍부터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禪은 세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 禪은 해탈에의 실천 방법이라는 것과 둘째, 禪은 이론이 아닌 실천이라는 것, 셋째는 禪의 실천은 이해에 의한 행(行)이 아니라 이해 이전의 근본의 행(行)이라는 것이다³⁾.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지식인 들이나 일반인 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을 '범부선(凡夫禪)⁴⁾'이라고 한다. 이는 전문 수행인이 아닌 일반 속세에서 생활하는 중생이라도 참선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맑

은 정신을 소유할 수 있고, 건강해지고, 예지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판단력과 관찰력, 표현력이 생긴다고 하여 범부선이 널리 권장되고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맑은 정신과 스트레스 해소를 禪의 의미에서 찾고자 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禪은 또한 불교의 한 종파로 달마 대사에 의하여 중국에서 태동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禪은 중국의 정신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도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는 물 흐르듯 자발적으로 기능하는 자연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禪은 우주란 하나이며 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라고 믿고 있으며, 개개인이 더욱 명백한 개개인이 될 때 각자가 이 전체의 관련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믿는다⁵⁾.

이러한 禪사상은 물질문명에서 속박당했던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화두(話頭)로서 서구에서부터 많은 사람의 급격한 관심 속에서 발전하여 다시 우리의 생활양식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 하였다.

2. 서구 사회에서의 禪(ZEN ; 禪) 사상의 확산 배경

기독교권 문화에 속한 서구인들에게 단순한 호기심 수준에 지나지 않던 동양적 관심이 가시화 된 이유는 통신 수단과 대중 매체의 발달이 전세계의 소식과 문화, 생활 등을 시차 없이 전달하게 됨으로써 세계의 문화적 차이가 조금씩 사라져 가게 되면서이다.

과거 서구인들은 동양의 표면적 특징만을 모방한 상상의 동양을 만들어 갔다. 따라서 서구인들은 동양 문명의 외형적인 특성에만 친숙해져 있었을 뿐 그 내적인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기이하고 멀게만 느껴졌다⁶⁾. 그러나 그동안 현실과는 동떨어졌으며 낡은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던 동양 철학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세기말적인 불안과 함께 기계화, 정보화가 이룩한 표준화된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진 현대인들의 새로운 인식처로 정적이면서 자연에

동화된 삶을 살아온 동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붐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그 관심의 형태가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불교는 동양 문화와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서양 문화의 관심 정도는 타임지에서 커버 스토리('Buddhism in America', TIME, October 13, 1997)로 다룰 정도이다.

서구인들이 불교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서구적 합리주의로부터 이탈하려는 태서 그 첫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서구적 전통에서 있는 합리주의로는 새로운 세계의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는 삶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자각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⁷⁾. 합리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사회내에서 개인의 소외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禪(ZEN:禪) 사상은 이러한 개인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심지어 불교가 새로운 인류의 삶의 길을 열어 줄 것으로 믿는 이들도 있다.

최근 서구에서 전파되고있는 불교의 흐름은 그 유파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선불교, 테라바다 불교, 티벳 불교이다. 이 중 선불교는 다분히 한국적인 것이나, 서구 사회에서의 일본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선불교는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문화적 접근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선 사상이 일본의 문화에 끼친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 너무 현저하여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이다. 즉, 시, 연극, 그림, 건축, 산업 예술 등의 예술 방면과 다도, 야채요리, 꽃꽂이, 실내장식 등의 사회 생활에서 그리고 교육적 훈련에 있어서 선의 관념은 일본인의 생활과 거의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⁸⁾. 이러한 현상은 종교와 문화가 서로 상승작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화된 선 불교는 다시 서구 사회에 전파되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 인테리어, 의류 분야의 패션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Ⅲ. 쯤(ZEN:禪) 스타일의 문화· 예술적 특성

20세기 예술, 문화 분야는 초반은 모더니즘, 후반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지배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쯤 스타일 또한 이 두 예술 사조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쯤 스타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예술 사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된다.

최근 문화 예술 각계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관성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포스트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단순히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현상' 만으로 해석 할 수 없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포스트라는 용어는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관계는 단순히 연속이나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의 논리적 연속으로 파악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으로 부터의 단절로도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

이 점과 관련하여 Stevick(1985)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이 맺고 있는 관계를 크게 변증법적인 관계와 대립적 관계 그리고 적대적 관계라는 세 유형으로 범주화 하였다. 그러나 김옥동(1992)은 모더니즘을 더이상 생존 불가능한 개념,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 사멸 이후 새로이 탄생된 개념으로 볼 때 이 두 전통이나 이론 사이에 어떤 변증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보다 확장적 개념으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호 관련성을 계승적 관계, 발전적 관계, 대립적 관계 그리고 적대적 관계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우선 실천적 위기 의식과 소외감, 고립감 같은 주제에서 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류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 미문의 1차 대전을 겪은 후 많은 사람들은 극도의 위기 의식과 비극적 상실감을 느꼈으

며, 이런 위기 의식이나 상실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결 더 첨예하게 부각되었다. 적어도 주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앞서 일어난 모더니즘의 예술적 전통이나 이론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사이에는 이렇다할 변별적인 구별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과거의 전통이나 인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자 하는 급진주의라는 형식적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전통이나 이론을 상당 부분 발전시키고 있다. 사실상 초기 모더니즘을 주도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모더니즘의 슬로건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네오 리얼리즘적인 경향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을 규정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고주의적인 성향 못지않게 전위적인 실험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특징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더니즘을 계승, 발전시킨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이러한 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양식이 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승, 발전의 관계를 쯤 양식 속에서 살펴보면, 역시 인간의 소외감, 괴리감, 위기감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주제의 큰 흐름을 가지면서 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 안에서 쯤 스타일의 기본 표현 양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쯤 스타일은 그 표현 양식에서 보다 발전된 새로운 모더니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이 인간의 합리주의적 사고와 이성 중심적인 양상을 띄고 있었던 반면 쯤 스타일은 인간의 감성적 사고와 자연의 순수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그 내면적 사상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지닌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쯤 스타일이 현대의 문화 사조를 어떻게 계승발전 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패션화 되었는지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계승, 발전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보다 심층 있게 분석해 보고자한다.

우선 모더니즘의 계승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니멀리즘 안에서 쯤 스타일의 기본 표현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모더니즘이란 20세기 초엽부터 서구에서 시작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운동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는 19세기 말엽의 사회 경제적 풍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19세기 중엽은 과학적 합리주의와 확실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가장 팽배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엽으로 접어들면서 과학적 합리주의는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주장으로 기독교의 주춧돌이 흔들렸으며, 프리드리히 니체는 절대성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병적이라고 비판하였고, 칼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주장하며 관념 철학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이들은 기성 전통과 인습을 과감히 타파한 역사의 도전자들이었다¹⁰⁾. 이러한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모더니즘은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비로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모더니즘은 무엇보다 기성 전통이나 인습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1920년대 중반과 후반에 일어난 모던 디자인 운동이 추구한 형태는 꾸밈과 장식이 없는 간결성, 명쾌성, 균등성, 순수성, 질서성, 합리성 등으로 표현되는 기하학적 형태였다. 이러한 모던 디자인 운동의 지속적 발전으로 196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상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서구 미술의 전제로부터 벗어나 적나라하며 더 이상 축소시킬 수 없는 최소한의 예술을 시도함으로써 단순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예술로의 길을 개척했다.

모더니즘 미술의 형식적 순수성의 특성을 극단적으로 실행하여 모더니즘의 정점을 이룬 것이 미니멀리즘이다. 젠 스타일의 형태는 모더니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장식이 없는 간결성과 순수성, 단순성의 추구라는 미니멀리즘의 형태는 곧 젠 스타일의 형태이기도 하다. 이는 미니멀리즘이 산업화, 현대화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젠 스타일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젠 스타일이 동양의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는 미(美)중에서 정적인 아름다움의 미, 즉 절제미를 표현하고자 하므로 그 외형적

표현 양식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젠 스타일은 20세기 초기의 모더니즘과는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의 모더니즘은 새 세계의 창조를 위해 옛 질서를 파괴하고자 할 정도로 역사성을 배제했으며, 국가적, 지역적, 자연적 양식을 부정하고 세계를 하나로 동일시하는 국제적 양식을 찬성했다. 그러나 젠 스타일은 다분히 지역적이고, 자연적이며, 역사성마저 지니고 있다. 이는 젠 스타일이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에서 모더니즘과 그 의미를 같이 두지만 인간 내면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며 동양의 지역적 사상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젠 스타일은 내면의 정신 세계를 지역적 사상에 담아 표현하려는 욕구를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 충족 시켰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부의 두차례의 세계 대전은 사람들에게 인류 멸망의 공포를 안겨 주었으며, 과학의 발달로 인한 자연적 재해들은 이러한 멸망에의 공포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모더니즘의 피치 못할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상대성과 다원론, 관용주의를 한결 설득력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근원적 배경은 합리적인 사상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조직화라는 20세기 후반의 사회 경제적 양상은 자본가 대신에 '전문가 집단'이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등장하며, 소집단들에 의해 사회가 광범위하게 조직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전자 대중매체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간은 기계문명 속에서 자아를 소멸시키는 현상을 낳게 되어 자아 상실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성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성과 상대성, 비결정성을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동양의 정신 세계에서 그 주제를 찾고 있는 젠 스타일은 이성이 아닌 감정과 직관적 감성을 표현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안에서 해석 가능하다. 서양인들에게는 낯선 동양의 정신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양식적 특성 중 탈경전화(Decanonization)와 보편 내재성(Immesity)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¹¹⁾. 그러므로 앞서 모더니즘과의 차이점에서 언급했던 젠 스타일의 특성인 인간 내면의 정신적 안정 추구하고 동양 사상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특히 이와 같은 예술적 특성과 맥락을 같이하여 90년대 중반부터 하나의 형태에 다양한 문화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모든 문화의 특징적 양식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며, 여러 문화를 하나의 형태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복합 문화 현상의 크로스오버(crossover)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크로스오버적 특성은 특정 분야에 있어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며 생활 양식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까운 일상에서는 미술품을 관람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서양의 맛과 동양의 맛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퓨전(Fusion)요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크로스오버적 특성은 이를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이들의 사고의 유연성과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관용적 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젠 스타일은 앞서 말했듯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계승, 발전으로 설명되면서 두가지 문화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젠 스타일의 정신적 배경이 되는 동양적 사상은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주 표현 양식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은 모더니즘적 문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정적인 순수함과 자연 친화적 사상이 산업화와 기계화의 결과라 할 수 있는 미니멀리즘적 특성을 빌어 표현되고 있으므로 이는 한 가지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동양의 사상을 그들 문화의 정신적 배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당연히 동서양의 복합적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젠 스타일은 하나의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크로스오버 현상의 대표적 한 형태라 할 수 있겠다.

IV. 패션에 나타나는 젠 스타일 (Zen Style)

본문에서는 패션에 나타나는 젠 스타일을 시기적 발생 시기와 전개 과정, 디자인 상의 유형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젠 스타일의 발생과 전개 과정

젠 스타일의 발생은 1800년대 후반 오리엔탈리즘이 그 발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젠 스타일의 모태가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Issey Miyake나 Kansai Yamamoto, Yohji Yamamoto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이 선보인 동양풍(특히 일본풍)이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젠 스타일로 본격화되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면적 양식에서 동양 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1900년대 초 Paul Poiret 등의 디자이너들이 제시했던 외형적 양식에만 나타나는 러시아풍이나 할렘 스타일의 동양풍¹²⁾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60, 70년대의 인도의 요가나 명상의 영향을 받은 Hippy풍으로 대변되는 에스닉한 스타일과도 외형적 양식에 있어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80년대 중반의 일본 디자이너들은 동양의 복식을 서구적으로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러한 작품들은 동양의 진정한 내면적 정신 세계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기 보다는 이국적이며 감각적인 새로운 조형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서구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서구인들이 동양의 것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할 수 있다.

그 이후 이러한 동양풍은 보다 내면적 사상의 깊이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1990년대 후반 서구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젠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패션에서의 젠 스타일은 앞서 언급했던 1980년대의 동양풍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 이유는 첫째, 앞서의 동양풍들이 동양의 이국적인 형태를 표현하기에 그친 반면 젠 스타일은 동양

의 내면적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 둘째, 동양의 절제미가 모더니즘의 핵심인 미니멀리즘의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째, 동양적인 것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서구 패션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선 사상의 내면 세계를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속에서 교차적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것이다.

젠 스타일의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Issey Miyake, Vivienne Tam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Issey Miyake는 80년대 초반 부터 다양한 동양풍, 특히 일본풍의 작품등을 선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동양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갔으며, Helmut Lang, Hussein Chalayan 등의 불교 문화권 밖의 디자이너들이 동양에서는 생활화 되기 까지한 젠 사상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시화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동양의 단순미 이외에도 형식의 파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연 친화적 스타일과 동양의 실루엣, 디테일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도 더욱 더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작품에서의 색상의 사용은 과거 일본풍의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던 Black & White의 전형적인 무채색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Skin Color, Dark Brown, Khaki, Olive Green, Grey 등의 색상을 사용하여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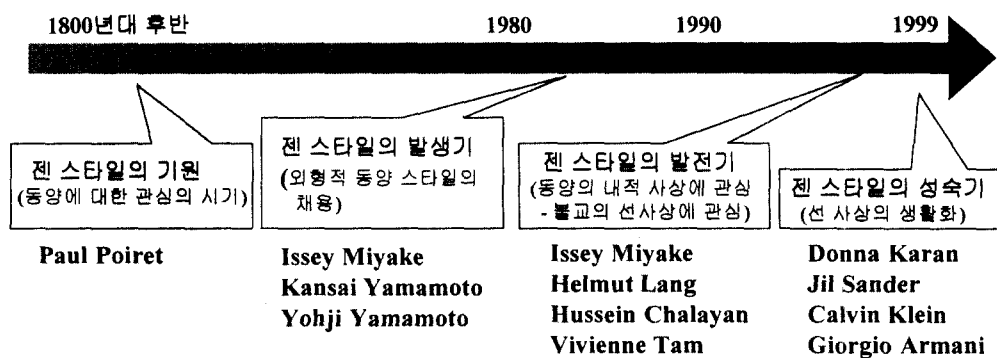
최근에는 Donna Karan, Jil Sander, Calvin Klein, Giorgio Armani와 같은 미니멀리즘의 대표적 디자이너들도 작품에서 젠 스타일을 선 보이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의 젠 스타일은 더 이상 하나의 양식이 아닌 기본적 형태로서의 젠 스타일이다. 즉, 이제

젠(ZEN:禪)은 하나의 컨셉이 아닌 패션에서는 고전(Classic)으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이들의 작품에서의 젠 스타일은 내적인 면에 더 충실하여 가시적인 젠 패션의 특징을 표현하기 보다는 젠 사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다 충실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작품들은 극도의 미니멀리즘적 형태로 보이지만 보다 인체의 구조적인 측면을 중시한 다양한 다트의 사용과 하이-테크 놀로지의 합성섬유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천연 소재의 특성을 가진 인간 친화적인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동양풍의 물과 같은 신발로 자유로운 해탈의 느낌을 주어 젠 사상의 보다 심층부를 파고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젠 스타일의 전개과정을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2. 젠 스타일(Zen Style)의 유형분석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은 1980년대에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확립된 양식들이 붕괴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성, 다원성, 다양성의 성격을 가지며 과거의 형식을 소생시키려고 노력하였다¹⁴⁾. 젠 스타일은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영향에 힘입어 앞서 언급한 상대성, 다원성, 다양성의 형태를 띠고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식에서의 최소표현은 최소의 조형요소와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침으로써 단순성,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¹⁵⁾이라고 정의하듯이



<그림 1>

젠 스타일도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젠 스타일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성, 다원성, 다양성의 성격과 모더니즘의 단순성과 순수성의 성격이 복합된 형태의 유형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젠 스타일을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은 복합적 형태로 보고, 패션에 나타나는 젠 스타일의 특성을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선 사상의 구조적 특성인 동양의 절제미를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 둘째, 선사상의 지역적 연고의 형태인 동양적 실루엣과 디테일의 사용. 셋째, 선사상의 핵심인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형태인 형식의 파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사상의 기본이 되는 자연 친화적 형태가 그것이다. 이는 젠 스타일의 초기, 중기, 후기의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형태이기도 하다.

위 네가지 측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구체적인 작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젠 스타일의 유형분석을 위한 객관적 형태를 알아 보기 위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동양의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제외시켰으며, 잡지나 신문 기사에서 젠 스타일이라고 규정지은 디자이너와 작품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① 동양의 절제미를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

동양의 전통적 복식은 공통적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그 형태와 실루엣으로 외적인미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내면의 정신에 그 무게를 더하고 있는 동양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외적형식의 절제로 내적 정신의 수양을 더 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젠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의 기본은 장식을 배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단순한 형태이다. 이는 모더니즘의 핵심인 미니멀리즘의 형태로부터 발전한 스타일이라고 해석 가능하나, 한편 동양의 미적 표현의 한 형태인 여백의 미와 절제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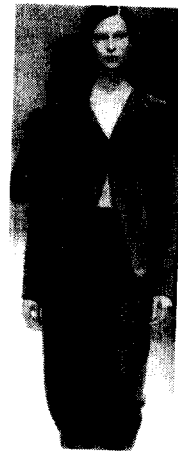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2>와 <그림 3>은 '98 F/W의 Donna Karan의 작품이며, <그림 4>는 '99 F/W의 Jil



<그림 2>



<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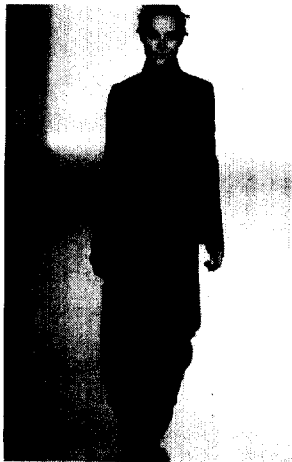
Sander의 작품으로 모두 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형태로 동양의 절제미를 느낄 수 있다.

② 동양적 실루엣과 디테일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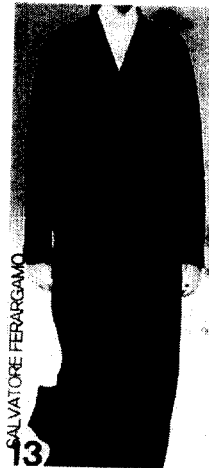
앞서 언급 했듯이 서구인들의 젠 스타일에 대한 배경에는 80년대 이후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파리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작품에서는 다분히 일본 전통 복식의 특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통 일본의 복식은 평면 재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는 여유있는 실루엣을 지니고 있으며, 앞이 전부 트여 있어 좌우를 포개어 여미게 되는 전개형의 형식이다. 여밈의 도구로는 '오비'를 허리에 두르고 그 위에 '오비지메'라는 끈을 매어 정리하여 입는 형태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실루엣, 전개형 앞트임과 허리의 끈장식은 또 하나의 젠 스타일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디자이너들의 동양적 디테일의 사용은 지금껏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90년대 말 젠 사상을 바탕으로한 동양적 실루엣과 디테일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소박하고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98 F/W의 Marc Jacobs의 작품인 <사진 5>는 동양적 스타일의 팬츠 실루엣이나 차이나 칼라 사용에 있어 매우 동양적이며, 불교의 구도자 이미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사진 6>인 Salvatore



<그림 5>



<그림 6>

Feragamo의 카키빛의 수트의 여유있는 실루엣과 여밈 부분의 가는 끈 장식은 동양 복식의 여유로움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며, <사진 7>의 White Padding 수트도 동양적 앞여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7>

사진의 작품들은 매우 도회적이고 세련된 경향의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이들의 작품에서 볼 때 과거의 동양적 디테일이 과장되고 감각적인 것이었다면, 젠 스타일에서의 동양적 디테일들은 좀 더 서구적인 스타일과 조화되어 융화되어있는 느낌이므로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관심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③ 형식의 파괴

젠 사상은 패션에서 형식의 완전성과 규정성의 부정, 즉 형식의 초월로 나타난다. 이는 형식의 완전성이나 규정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형식으로 향하게 하기 쉽고, 내부의 진리로는 향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¹⁶⁾. 좌,우 겹쳐지는 앞 여밈의 형태는 서양 복식의 형식을 파괴한 가장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99 S/S와 F/W Collection의 Hussein Chalayan은 <그림 8>과 <그림 9>에서와 같이 앞 중심선의 변형 뿐 아니라 좀 더 과감한 형식의 파괴를 시도하였다. 그는 좌, 우 비대칭의 깃 스타일 및 비대칭적 디

자인, 앞 중심선의 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몇몇 디자이너에 의해 시도되었던 일이지만 이처럼 파괴적 형식의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젠 사상을 나타내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부드러운 느낌의 그레이와 카키빛도는 블랙 등의 무채색 칼라를 사용하여 동양의 정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그의 '99 S/S와 F/W Collection은 미니멀리즘을 기조로한 젠 스타일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0>인 '98 F/W의 Tayama Atsuro의 Knit와 Skirt 역시 넥크의 비대칭적 디자인과 스커트의 한쪽으로 두드러진 조형적 형태가 형식의 파괴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그림 10>



<그림 9>

이 외에도 Helmut Lang, Vivienne Tam, Comme Des Garçons, Issey Miyake 등이 젠 스타일의 디자인을 발표하였으며, 마무리하지 않은 헴라인, 천을 여러 겹 겹친 스커트, 케이프와 같은 형태의 상의 등으로 형식 파괴의 미학을 표현했다. 이런 젠 사상이 기본이 되는 형식의 파괴적 스타일은 과장되고 기묘한 스타일에서만 미래적 느낌을 받던 우리들에게 고요하고 낙천적인 분위기의 미래적 느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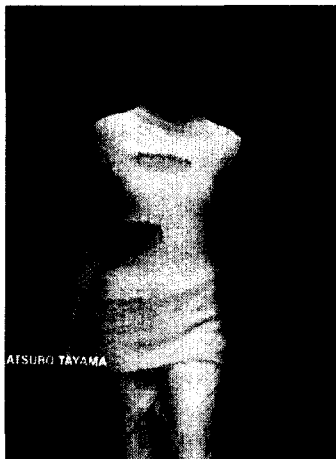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도시적 느낌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Calvin Klein, Jil Sander 등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젠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④ 자연 친화적 형태와 소재 사용

앞서 언급했듯이 선(禪)사상은 자연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며 자연에 동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내면적 고찰을 통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는 자연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아 패션에서의 젠 스타일은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염색하지 않은 천연 소재의 사용과 시접 처리를 하지 않은 올풀림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칼라 사용에 있어서도 Black, White의 무채색에서 벗어나 Khaki나 Beige, Olive Green등을 사용하여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달라이 라마로 대표되는 티벳 불교의 영향을 받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천을 몸에 둘러 묶은 듯한 스커트와 실과 바늘없이 천을 몸에 둘둘 감는 의상 등이 티벳 승려들의 승복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이야기 했듯이 무채색이 아닌 부드러운 느낌의 Khak, Beige 등의 칼라 사용도 그 영향이다.

<그림 11>의 Atsuro Tayama는 '98 F/W Collection에서 천으로 몸을 둘둘 두른듯한 디자인에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올풀림을 그대로 나타내는 작품을 선보였으며, <그림 12>의 Cerruti와 <그림 13>의 Byblos도 같은 경향의 디자인을 내놓았다. 특히 Cerruti의 작품은 티벳불교의 자연적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스커트의 이음 부분의 디테일과 단추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없는 앞여밈은 동양적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 친화적 경향의 디자인은 과거의 자연회귀주의적 경향을 띤 원시주의, Naturalism, 히피풍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젠 스타일 안에서의 자연친화적 경향은 전체적 젠 스타일이 그렇듯이 장식이 거의 없는 형태이며 소재 자체의 색감을 살린 천연소재나 자연친화적 색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소재를 사용하더라도 현대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천연 소재의 터치감이나 외형을 지녔을 뿐 아니라 섬유 자체의 성능도 개선된 고성능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부드럽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연 친화적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V. 결 론

복잡한 현대 생활,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문제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에 의해 서구인들은 이에 대한 탈출구를 찾게 되며 동양의 신비주의에 이끌리게 되었다. 서구 문명의 모더니티안에 내재된 비인간적 속성이 동양 철학에 기반을 둔 오리엔탈리즘과 융화되어 보완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젠 스타일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양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화적 특성으로서의 젠 스타일은 첫째, 내면 양식의 배경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의 오리엔탈리즘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기말의 심리적 불안감과 기계화, 산업화로 인한 표준화된 삶에 회의를 가지게 된 현대인들이 정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동양 사상에서 그 안식처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젠 스타일의 외면적 표현 양식은 모더니즘의 정점인 미니멀리즘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양의 절제미를 표현하는 것 과도 매우 일치하며, 복잡한 생활의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패션에서의 젠 스타일은 동양적 재단법과 실루엣, 디테일을 사용한 형식의 파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형태인 형식의 파괴는 복식 디자인의 고정 관념을 거부하고 이를 초월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외부의 형식에서 내부의 진리로 돌리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형식의 파괴는 미니멀리즘의 표현 방식을 빌어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며, 동양의 겹쳐지는 앞여밈이나 허리의 끈여밈 등 디테일의 도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젠 스타일이 미니멀리즘과 크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좀 더 따뜻한 칼라와 소재의 사용으로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향이 자연 친화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결과 서양에서의 젠사상의 각광은 복식에서 뿐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동서양을 결

합하고, High Tech와 인간의 정신 세계를 결합하여 재해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미래주의를 제시하였다.

21세기의 디자인은 다양한 문화적 뿌리와 유산을 강조함으로써 사물과 이미지가 선택되고 소비될 문화적 필요성을 더욱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본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의 개념이 사라지고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 장점을 부각시켜, 도용하는 형태의 문화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젠 스타일은 이와 같은 문화적 현상의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며, 앞으로의 다양한 문화의 복합화 현상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및 미주

- 김길상(1998), 불교대사전, 흥법원
- 김민수(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서울출판사.
-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 김은덕·김민자(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24호.
- 유전성산(1984), 선사상, 한국불교연구원.
- 이선영(1994), 모더니즘, 민음사
- 이예영·김민자(1999),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 한국의류학회지, Vol.23, No.8.
- 자명 스님(1999), 미국에서 이는 불교 바람, 문학리뷰, 1999년 8월호
- 정연자(199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4호
-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CLARENDON PRESS OXFORD
- Caroline Renold Milbank(1985), COUTURE: The Great Fashion Designers, Thames and Milbank.
-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예술의 의미』 박용숙 역(1994), 문예출판사.
- 이합 핫산(1987), 포스트모던한 전망속의 다원주의
- 존 스탠포니 외, 김종욱 편역(1993), 서양 철학과 禪, 민속사
- J.Blackstone, et al, 유승은 역(1995), 선 :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남양:이두.
- 다카쿠스 준지로, 정승석 역(1989), 불교철학의 정수, 대원정사.
- TIME, October, 13, 1997
- 조선일보, 2000, 2, 8

- Collections: '98S/S, '98 F/W, '99S/S, '99F/W
 - Collezioni: '98F/W, '99S/S
 - Mode et Mode: '98S/S, 98F/W
- 1) Zen : A school of Mahayama Buddhism that Emphasizes meditation and personal awareness and become influential in Japanese life from the 13th century after being introduced from china.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CLARENDON PRESS, OXFORD
 - 2) 존 스태프니 외, 김종욱 편역, 서양 철학과 禪, 민족사, 1993
 - 3) 유정성산, 선사상, 한국불교연구원, 1984, p42
 - 4) 김길상, 불교대사전, 흥법원, 1998
 - 5) J.Blackstone et al, 유승은역, 선: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 남양:이두, 1995. p25
 - 6)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예술의 의미』 박용숙역, 문예출판사, 1994, p122
 - 7) 자명스님, 미국에서 이는 불교 바람, 문학리뷰, 1999년 8월.
 - 8) 다카쿠스 준지로, 정승석역, 불교철학의 정수, 대원정사, 1989, p212
 - 9)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 10) 이선영, 모더니즘, 민음사, 1994
 - 11) 이합학산, 포스트모던한 전망속의 다원주의, 1987
 - 12) Caroline Renold Milbank, COUTURE: The Great Fashion Designers, Thames and Milbank, 1985, pp78~81
 - 13) 조선일보, 2000. 2. 8
 - 14) 정연자,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1993
 - 15) 김은덕·김민자,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24호, 1995, p163
 - 16) 이예영·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 한국의류학회지, Vol.23, No.8, 1999, p142